<10.16873/tkl.2021. 88. 8>
한국문학논총 제88집(2021. 8) 405~440쪽

세월호 소설의 비-인간적 형상 출현과 탈주체화*

- 동물-되기, 좀비, 슬픔의 정치학

김 영 삼**

차 례

1. 머리말
2. 동물-되기와 살균된 슬픔
3. 동물-되기와 반복 강박
4. 좀비와 생존주의
5. 나가며 ; 탈주체화의 정치성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세월호 추모소설집에서 동물(사자, 개)과 좀비와 같은 비-인간적 존재를 서사화한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탈주체화의 새로운 진리 생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동물-되기'와 재난 사태의 서사화에 우세종으로 보이는 좀비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의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비-인간적 존재들의 서사는 사건 이후 주체의 변화와 슬픔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문학의 형식적 실험으로서 세월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2950)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호 사건이 ‘살균된 슬픔’이나 생존주의의 지배로 전락하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주체가 자기의 위치를 타자의 자리로 재배치하는 탈주체화의 방식을 ‘되기(=생성)’의 생동하는 힘이 작동하는 원리로 제시한다. 인간의 ‘동물-되기’는 동물로 변한 인간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되기’는 리좀의 생산이며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이다.

박사랑과 최지애의 소설에 등장하는 동물(사자, 개)은 주체의 변용과 감응을 통해 ‘되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박사랑의 화자는 경제적 일상의 유지를 위해 세월호 사건의 슬픔을 점차 망각해가는 과정을 ‘동물(사자)-되기’의 실패 서사 형식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은 텔레비전으로 전달되는 참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일상의 미세한 변화를 겪는다. 사자는 이러한 변화와 감응이 투사된 환영이며, ‘되기’로의 이행을 보여준 증거이다. 그러나 배치 관계의 변화는 주인공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화자의 정동은 바깥에서 요청되거나 주어진 것으로서 ‘되기의 강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지애 소설의 아버지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아들과 집을 나간 강아지 달용이의 부재를 겪는다. 아버지의 ‘동물(개)-되기’는 사랑하는 대상의 부재를 스스로의 탈주체화를 통해 의미화한다. 소설은 아버지의 자리를 달용이의 자리로 재배치함으로써 상징계적 질서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변신이 퇴화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반복과 강박이 고정된 질서가 강조하는 규범과 상징계적 언어의 특징인 것처럼, 소설의 아버지 또한 반복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 아버지의 ‘동물-되기’에는 자기 징벌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다. 방민호의 소설은 좀비의 존재를 통해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망각하려는 생존지상주의적 현실을 상징화하고 있다. 좀비의 무조건적 직진성, 강박적인 반복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습득한 노동의 형식을 연상하게 한다. 즉 좀비는 생존주의의 가혹함을 증명하는 존재면서 동시에 생존주의의

행동양식을 전염시키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증상을 증명하는 존재이다. 방민호의 소설에서 좀비의 등장은 이 가혹한 생존주의가 바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며, 사건이 요청하는 진리추구의 충실성을 막아서는 병리적 증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슬픔과 분노는 주체를 뒤흔들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게 하는 역능을 소유하는 정동이다. 그러나 고정적 언어와 규범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슬픔은 카타르시스 효과에 의해 세탁된 슬픔으로 전락하고 감정의 소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세 편의 작품에 등장하는 비-인간적 존재들은 이러한 감정의 소진을 막아서고 슬픔의 정치성이 갖는 힘을 실패와 가능성의 서사로 보여주면서 문학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다.

주제어 : 세월호, 동물-되기, 좀비, 탈주체화, 비-인간, 생존주의, 「사자의 침대」, 「달용이의 외출」, 「흡혈 사마귀」

1. 머리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맹골수도의 파도는 여전히 거칠어서 한국 사회와 문학은 아직 세월호 사건이 요청한 진실과 사회적 구조의 변화의 목적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 의미로 재난은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이는 정동의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사회 구조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폭로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살아남은 주체 또는 목격자들에게 죄책감을 남기고, 이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주체들의 삶과 윤리적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우울, 미안함, 부끄러움과 같은 정서의 울림을 추동했다.

인위적 재난은 사건의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체들의 삶을 성

찰의 대상으로 환원하면서 개인의 책임 범주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1] 따라서 사건이 불러온 타인의 죽음은 생존의 방식을 심문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다. 사건으로 인한 죽음이 남은 자들의 삶의 불확실성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강화하고, 이러한 감각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주체에게 애도의 윤리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어 왔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난 연구들은 이러한 지점에 주목해서 이루어졌다. 르포나 수기 또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가족들의 기록에 대한 논의들[2]과 사건에 대한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3]도 보고되었다.

본 연구자는 세월호 이후 출판된 두 권의 추모소설집을 대상으로 주체의 윤리적 태도와 '사건'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윤리성과 문학적 태도에 주목했던 지난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서사 주체들의 탈주체화 양상에 대해 주목하면서 세월호 문학의 의미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다.[4] 이를 위해

---

1)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공동의 윤리 차원에서 고민했던 집단적 연구들이 사건 직후 다수 출판되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이병천·박기동·박태현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6. /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힘, 2016. / 인디고 서원, 『새로운 세대의 탄생』, 궁리출판, 2014. / 인문학협동조합,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4.16.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망각과 기억의 변증법』, 김교빈 외, 이파르, 2015.

2) 김현미, 「애도의 저자들, 준엄한 기록들」, 『여/성이론』 32, 여이연, 2015. / 최강민, 「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 『어문론집』 71, 중앙어문학회, 2017.

3)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트라우마와 문학」, 『문학과사회』, 2014년 가을호. / 신샛별, 「최근 소설이 '세월호'를 사유하는 방식」, 『창작과비평』 168, 창작과비평사, 2015. /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학과사회』, 2014년 겨울호.

4) 졸고,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1 -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6, 전남대호남학연구원, 2018. / 졸고,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2 - 추모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본 논문은 세월호 이후의 문학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지난 연구의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탈주체화의 양상을 비-인간적 형상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사건의 진실과 슬픔을 재현하는 작품에 초점을 두었던 지점에서 벗어나 세월호 추모소설집에서 동물(사자, 개)과 좀비와 같은 비-인간적 존재를 서사화한 작품[5]을 분석함으로써 탈주체화가 이끄는 새로운 진리 생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동물-되기'와 좀비가 지니는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의 방법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로써 비-인간적 존재들의 서사가 사건 이후 주체의 변화와 슬픔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문학의 형식적 실험으로서 세월호 사건이 '살균된 슬픔'이나 생존주의의 지배로 전락하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탈주체화로 이행하는 서사들이 어떻게 감정의 소진을 막아서고 어떻게 슬픔의 정치성이 갖는 힘을 생성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가능성과 한계의 지점을 동시에 살피면서 분석하려고 한다.

탈주체화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체가 인간 중심주의의 배타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는 더 이상 단일성과 순혈성이 지배하는 지대가 아니라 모순성, 양가성, 혼성과 혼혈성이라는 불투명의 지점에 있다. 타자에 대한 경계와 구분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고착화된 주체의 개념은 인종주의와 여성혐오를 넘어 호모 포비아의 형태로 확장되면서 타자를 오염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체에 대한 배타적 사유의 위험성을 증거하고 있다. "인간은 이미 주어진 개념이 아니라 도래하는 것(a venir)"이며, "인간 개념은 사건성으로서의 주체화"[6]인 것이다.

---

5) 두 권의 추모소설집에 수록된 다음의 작품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박사랑, 「사자의 침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심상대 외, 예옥, 2015. /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 / 방민호, 「흡혈 사마귀」,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 세월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사건이 남긴 정동의 파상성과 현실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진실성 그리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던지는 비판적 질문의 차원에서 분석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와 차별점을 두면서 동물과 좀비와 같은 비-인간적 형상들의 출현이 지니는 의미를 서사적 형식과 탈주체화라는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탐색하려 한다.

이러한 주체 개념의 열림과 확장을 세월호 사건의 문학화에 대입할 때, 작품에 등장하는 골렘, 무젤만, 좀비, 동물 등의 출현은 세월호 사건을 사회 구조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서 인간 또는 시민 개념에 대한 새로운 사유로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것 같다.[7] 때문에 비-인간적 형상을 소재화하는 작품들은 인간주의에 대한 봉합적 사고에서 탈인간주의적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요청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리오타르가 '낯섦'의 정동이 지닌 정치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기존의 범주들을 유효성을 파기하면서 진리, 정의, 국가와 같은 거대 담론의 질서가 구성방식과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낯섦'은 고립, 유폐, 배타적 구역, 고정성 등과 결별하게 하면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경계를 드러내는 감정의 지표다.

주체의 고정성은 마치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과도 같다. 질서, 권력, 복종, 안정 등의 구조적 언어들은 모더니즘적 인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담론처럼 보인다. 반면 탈주체화의 확장은 "기억하라"는 다짐과 같다. 고정된 구조를 파열하는 이러한 애도의 언어는 위계화된 식별의 범주들-정상과 비정상, 아군과 적군, 이성과 광기, 그리고 경제적 언어와 정동의 언어 등-의 봉합선을 찢음으로써 억압되었던 정동의 에너지와 리비도를 분출하게 한다. 경제 논리와 국가 안정과 질서를 내세우는 합리적 이성의 포획 행위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탈주체적 서사들은 주체를 고수하고 타자(세월호 사건)를 오염과 무질서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개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형식이다. 문학이 재현과 예술성이

---

6) 윤지영,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으로서의 주체의 콘텐츠화」, 『철학연구』 125, 대한철학회, 2013, 268-269쪽.

7) 세월호 소설에 대한 지난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골렘과 무젤만 등의 형상을 중심으로 시민 주체의 윤리적 사유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으나, 본 논문을 통해 이 논의를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함으로써 지난 연구의 부족함을 메우면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려고 한다.

라는 고유한 목적성을 벗어나 추모(기억하겠다는 다짐) 자체를 목적으로 비-인간적 형상들의 낯섦을 통해 사건을 이야기화한다면, 그 자체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문학적 답변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세월호 추모소설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비-인간적 존재에 주목하면서 탈주체화의 서사들이 낯선 존재들을 통해 어떻게 의미의 고정성과 망각의 억압을 넘어서면서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탈주화하는지를 점검하려고 한다.

2. 동물-되기와 살균된 슬픔

「사자의 침대」[8]는 경제 지상주의와 생존주의에 의해 세월호 사건의 슬픔이 점차 잊혀져가는 과정을 서사화하면서 망각이 요구되는 현실적 삶의 모습을 전형적인 플롯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의 전형성과 달리 화자 '나'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침대 위에 나타난 '하얀 사자'의 돌연한 등장은 소설을 낯선 해석의 영역으로 유도하고 있다. 화자 '나'가 사자를 처음 본 것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그날 밤,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나온 직후였다.

> 핏발이 선 눈을 문지르며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거울 안에 희끄무레한 물체가 보였다. 그것은 커다란 솜뭉치 같기도 하고 뿌연 구름 같기도 했다. 눈을 비비던 손을 내리고 거울 가까이로 다가갔다. 미간을 좁히며 초점을 맞췄을 때 나는 숨을 흡, 들이키며 멈췄다. 거울 속에 있는 건 하얀 사자였다.
>
> 너무 놀라 튕기듯 거울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안경을 쓰고 다시 보자 거울 안에는 눈을 동그랗게 뜬 나밖에 없었다. 그냥 헛것을 본 거였나.

8) 박사랑, 「사자의 침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옥, 2015.(이후 본문에는 작품명과 쪽수 또는 쪽수만 표기)

> …… 화장대에 앉은 채 계속되는 뉴스 속보를 봤다. 출렁이는 검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침대로 다가가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사자가 침대 위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자의 침대」, 348-349쪽.)

사자의 흰색은 죽음에 대한 애도를 상징한다. 급작스럽게 등장한 하얀 사자가 주는 낯섦과 “금방이라도 내 어깨를, 가슴을 할퀼 것”(349쪽.) 같은 두려움은 텔레비전으로 전송된 원인모를 죽음을 목도한 당혹감과 공포를 연상하게 한다. 또 사자가 우리의 일상 한 가운데 가장 안락한 휴식의 공간인 침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일상의 모든 조건들을 심문의 장에 회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사자의 출현이라는 설명 불가능함과 모호함이 지배하는 소설의 특징은 세월호 사건이 우리의 삶에 기입된 형식과 다르지 않다. ‘나’가 “도대체 왜, 어디서 사자가 나타난 것”인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이상 350쪽.)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월호의 진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모를 슬픔과 공포와 죄책감이 그녀가 사자를 침대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이유다.

사자는 “너무도 실재”(350쪽.) 같지만 사실은 ‘거울’에 비춘 환영이기도 하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매개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세월호가 잠겨가는 사건을 목도하면서 슬픔과 응시와 감응의 눈물을 흘리던 화자의 변용이다. 또 ‘나’의 일상 공간에 불시에 닥친 낯선 존재라는 점에서 사자는 세월호의 희생자들의 변용이기도 하다. 또 출근 후에도 사자의 존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연인인 ‘명’을 떠올린다는 점에 주목하면, 사자의 존재는 그동안 ‘나’가 애써 외면했던 존재들을 지시하기도 한다. 즉 작가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와 목격자 그리고 유사한 처지에 놓은 사람들을 모두 사자로 변용하는 장치로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는 이러한 변용 또는 재배치를 '동물-되기'[9]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동물-되기의 핵심은 '배치(assemblage)'[10]와 연관된다. 변신을 통해 다른 존재의 삶으로 자신을 변용시키는 것은 주체의 물질적 신체의 운동과 정지의 상태들이 동물의 그것으로 재배치되면서 '결연'된다는 것이다. 가령 인간이라는 주체적 존재가 다른 존재(개, 말, 쥐, 벌레 등의 동물)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유사성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신체를 전혀 다른 존재의 신체가 놓인 운동과 상태의 맥락에 배치해야만 한다.[11] 이 새로운 배치로 인해 주체는 타자적 존재에 대한 감응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이것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동물-되기의 방법이다.

「사자의 침대」에서 주인공이 사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 사건

---

9) 들뢰즈/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3, 443-585쪽. 열 번째 고원 <강렬하게-되기, 동물-되기, 지각 불가능하게-되기> 참조. "인간의 동물-되기는 인간이 변해서 되는 동물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다른 무엇 되기>는 이 다른 무엇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이다. …… 결국 되기는 진화, 적어도 혈통이나 계통에 의한 진화는 아니다. 되기는 계통을 통해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데, 모든 계통은 상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되기는 항상 계통과는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 되기는 결연(alliance)과 관계된다. …… 되기는 리좀이지 결코 분류용 수형도나 계통수가 아니다. 되기는 결코 모방하기도, 동일화하기도 아니다. … 또한 그것은 생산하기, 즉 계통을 생산하기, 계통을 통해 생산하기도 아니다. 되기는 자기 나름의 고름을 갖고 있는 하나의 동사이다."(452-454쪽. 강조 인용자)

10) 동물-되기의 방법으로 '배치'에 대한 강조는, 이수경, 「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 연구」, 『철학논총』 72, 새한철학회, 2013.4.

11) 들뢰즈와 가타리는 슬레피안의 사례를 통해 재배치의 방법론을 시사한다. 슬레피안은 재배치의 수단으로 신발을 사용한다. 인간의 손에 신발을 신긴다면 손은 이제 새로운 관계의 배치에 진입하게 된다. 만약 먼저 한쪽 손에 신발을 신었다면 다른 쪽 신발을 묶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새로운 배치로 변용된 입에 의해 해결된다. 이제 입은 말을 하고 이성을 표현하며 사랑을 하고 음식을 먹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아니라 손을 대신해 신발 끈을 묶는 개의 입으로 재배치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490쪽.

또한 이러한 배치와 감응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침대에 ‘하얀 사자’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응시하는 것처럼 재배치는 주체의 탈주체화를 이끈다. 침대는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휴식의 공간에서 슬픔과 애도가 요구되는 공간으로 재배치된다. 텔레비전은 경제적 삶의 유지를 위해 재충전을 제공하는 스펙타클의 환영에서 참혹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주체의 삶에 기입함으로써 현실의 참혹함과 비극성을 깨닫게 하는 실재의 재현 장소로 변용된다. 또 남자친구 ‘명’의 행방과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또한 감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12] 그러니 재배치 전후의 유사성이나 유비관계보다 배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 전자는 알레고리적 의미 해석을 통해 사건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인데 비해, 재배치하는 것은 변신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삶을 향해 자기의 삶을 변용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망각의 명령에 충실하면서부터 사자는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동적 관객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온순한 습속’[13]으로 복귀하고, 원인 모를 등장으로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 사자는 조금씩 지워지고 결국 사라진다. 텔레비전의 채널 어딘가에 등장하는 밀림의 자리, 또는 그녀가 리모콘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시청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의 자리, 그러다 금세 이전 채널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늪으로 이동한다.

---

12) 나는 명의 불행을 등졌다. 명의 아픔을 보듬으려 하지 않았고 삶의 고단함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변화하기 귀찮아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357쪽) / 나는 싸움이 싫고 갈등이 싫고 큰 소리가 싫었다. 그래서 네,네,로 일관하며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바람 부는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으면 바람은 그렇게 내 등을 지나쳐 갔다. 그러고 나면 어디서 왜, 바람이 불어왔는지 잊었다.(360쪽)

13)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역동성과 정치성을 유순함으로 진정시키려는 존재들을 일컫는 용어로 랑시에르가 제시한 바 있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68쪽.

> 며칠이 지나면서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어느새 사자의 존재에도, 명의 부재에도 익숙해졌다.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뱃머리마저 삼켜버린 바다를 봐도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다. 회사에 가면 사자도 명도 떠오르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다. …… 내 몸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집안에 있을 때에도 사자를 잊었다. 사자가 정말 없었던 건지 희미해졌던 건지, 아무튼 잘 보이지 않았다. 사자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불쑥 나타난 사자에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사자의 침대」, 365쪽.)

> 이제 사자는 더 이상 나를 잡아 먹을듯한 눈으로 쳐다보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사자를 매섭게 쳐다봤다. 사자의 눈은 빛을 잃고 가라앉았다. 나는 사자의 눈 속에서 명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고, 생명을 삼키고도 태연한 바다를 보았고, 그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던 사람들의 번들거리는 입술을 보았다. 일렁이는 사자의 눈은 더 많은 것을 내게 쏟아놓으려 했다. 명이 말도 없이 떠나버린 이유와 바다 밖 사람들이 덮어두고 있는 진실을. 그래서 나는 등을 돌렸다.(「사자의 침대」, 367쪽.)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설은 '나'를 사자의 자리로 변용시키면서 동물-되기의 탈주체화로 이끌어가지만 결국 이러한 시도는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처음의 재배치가 '나'의 눈물과 연동되었다는 점에서는 '감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자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재배치는 주인공의 능동적 수행성의 결과가 아니라 바깥에서 요청되는 것, 주어진 것, 강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 소설의 동물-되기 전략이 두 가지의 역설적 의미를 띤다는 말이 된다. 하나는 슬픔(공포, 연민)을 느끼는 주인공의 정동을 사자의 출현이라는 비현실적 맥락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당혹감과 불안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도시라는 인공적이고 구조화된 공간에 등장한 사자는 맹수로서의 자연성과 폭력성과 야만성을 환기한다. '나'가 처음 사

자를 보았을 때 사자에 의해 찢기거나 물리는 등의 공포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를 증거한다. 이러한 사자의 자연성과 폭력성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바다의 가혹한 자연성과 그들의 죽음을 방기했던 권력과 사회의 무자비함과 무능력함을 동시에 의미한다. 즉 사자의 돌연한 출현은 불가항력적이고 비극적이었던 사건의 비개연성(비논리성, 설명불가능함, 납득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주인공 '나'가 느낀 슬픔은 비극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극장의 관객이 느끼는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되기의 실패를 복선으로 깔고 있다. '나'는 세월호 참사의 며칠 동안에는 검은 바다가 상기하는 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을 느낀다. 출근한 이후에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영상과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는 사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관계가 뜸해진 남자친구 명(잠수부)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는 행위는 감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내 이러한 슬픔은 '나'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다. '나'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피곤과 소진 등의 신경증을 느낀다. 그래서 '나'가 사자에게 "오늘 밤에는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사자의 침대」, 354쪽.)라고 말했을 때, 요청되고 주어진 감응은 너무나 쉽게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 하나의 사물(양태)에서 다른 사물로, 하나의 신체(양태)에서 다른 신체로 변용되기 위해선, 그렇게 변용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필요한 강밀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되기'는 '강밀도'가 중요한 개념이 된다. 강밀도의 문턱은 사물의 상태를 하나의 양태로 정의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넘나들 수 있는 것이란 점에서, 그런 사물의 정의는 '되기의 구도' 위에서 사물이 정의되고 감응되어 다른 사물이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그것은 사물을 하나의 상태로, 규정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되기'의 과정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게 해준다.[14]

「사자의 침대」에서 '관객'으로서 '나'는 이진경이 강조하는 '되기의 강밀도'가 조밀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나'가 처음 텔레비전을 통해 세월호의 참사를 바라보고 슬퍼하지만, 현실 삶의 조건은 '나'를 강한 중력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자-되기'의 착각은 자신이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자신이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냉소적 시선의 권력에 의해 응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스펙타클의 세계 속에 고정된 이러한 소외의 구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관객석의 억압은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옭아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설에서 텔레비전으로 표상되는 스펙타클의 사회는 슬픔을 비롯해 갖가지 정동의 효과를 매개로 관객들을 동원하고 통제한다.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슬픔은 우리의 정동을 조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발동시킨다. 소설의 주인공이 한동안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도, 잠수부인 남자친구가 세월호의 현장에 가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그의 빈집을 찾는 것도, 카타르시스 효과가 은폐술로 보여주는 정동의 효과에 불과하다. 정작 '나'는 다음 날의 출근이 걱정되어서 명의 집에 가는 것을 미루었고, 텔레비전이라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먼 비극보다 자신의 다친 발목 때문에 명에게 하소연을 한다.[15] 비극을 목격한 관객에게 찾아온 격렬한 울

14) 이진경, 『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3, 38쪽.

15) 이와 관련된 증거는 소설 곳곳에 있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왜 휴대폰 꺼놨어? 읽지 않은 문자가 쌓여 갔다. 나 발목 다쳤어. 읽지 않음. 오늘 과장한테 혼나고. 읽지 않음. 넌 지금 어디에 있니? 읽지 않음."(361쪽.) / "나는 싸움이 싫고 갈등이 싫고 큰 소리가 싫었다. 그래서 네,네,로 일관하며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바람 부는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으면 바람은 그렇게 내 등을 지나쳐 갔다. 그러고 나면 어디서 왜, 바람이 불어왔는지 잊었다"(360쪽.) / "나는 명의 불행을 등졌다. 명의 아픔을 보듬으로 하지 않았고 삶의 고단함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변화하기 귀찮아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357쪽.)

음 뒤에 찾아오는 기이한 안정감과 평온이라는 공적 언어로 세탁된 슬픔이 잠시 그녀를 다녀간 것뿐이다.

슬픔과 분노는 주체를 뒤흔들면서 원래 자리했던 위치로부터 뿌리 뽑힌 채 떨어져 나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나서는 '방황'의 여정에 기꺼이 나서게 하는 역능을 소유하는 정동이다. 이러한 역능이 동물-되기 또는 탈주체화의 변용과 다르지 않다. 라깡은 카타르시스를 이러한 역능을 조기에 차단하는 거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16] '나'가 리모콘을 가볍게 누르며 관람하는 텔레비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웃음, 슬픔, 분노, 죄책감 등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정작 이러한 스펙타클이 겨냥하는 것은 감정의 소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상처를 은폐하는 가짜 상처들, 또는 치명적 슬픔을 봉합하는 살균된 슬픔들, 또는 유사-정동의 카타르시스 기능이 '나'를 고정된 좌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17]

세월호를 소재로 삼는 소설이 이러한 카타르시스의 역할에 머물 때 문학은 감정 소진의 기능에 사로잡히게 된다. 증상으로서의 슬픔에 주체들이 응답하면서 변용의 자리로 스스로를 재배치하지 못하고 과잉된 슬픔을 분노의 서사로 형상화할 때 문학은 새로운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소모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비-인간적 형상에 주목하는 것은 '낯섦'의 서사가 사건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행하면서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극을 관람하는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슬퍼하고 먼저 분

16) 이에 대한 라깡의 논의에 대해서는 백상현, 『라깡의 인간학』, 위고, 2017. 강의2.
17) 백상현은 이러한 카타르시스의 일시적인 슬픔을 '불량체액의 배출'로 표현하기도 했다. "비극을 통해 슬픔 속에서 불확실한 감정들을 모두 배출해버린다는 것은 감정들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들을 일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증상으로서의 슬픔에 숨겨진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비극의 카타르시스 기능이란 이렇게 슬픔을 잊기 위한 슬픔, 분노를 사라지게 만드는 분노라는 역설적 기능을 하고 있다." (백상현,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 세월호에 대한 철학의 헌정』, 위고, 2017, 64-67쪽.)

노하는 코러스와 같은 기능으로 문학을 소비하지 않는 가능성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박사랑은 동물-되기를 통한 탈주체화의 실패 서사를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 동물-되기와 반복 강박

최지애의 「달용이의 외출」[18]은 애완견 '달용이'의 실종을 통해 가족 상실의 슬픔을 서사화하고 있다. 달용이의 '외출'은 3년 전 세월호와 함께 영원히 '외출'한 형의 부재를 소환하면서 가족을 다시 한 번 깊은 상실과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소설은 달용이의 행방을 추리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왜? 어디로? 어떻게?'라는 의문사에 답할 만한 단서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바깥으로 나가버린 세월호처럼 그것은 모호함과 불가해함의 영역으로 서술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적 누락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건 이후 남겨진 자들의 마음과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작품이 쓰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 우리 가족은 그랬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형은 형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느라 바빴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밥 한 끼 할 여유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안부를 물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정신없고 개념없고 자신이 사람인 줄 아는 달용이만이 각자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말도 안 되는 재롱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달용이의 외출」, 296쪽.)

18)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이후 본문에 작품명과 쪽수 또는 쪽수만 표기)

> 달용이를 찾느라 저녁 시간을 놓친 아버지와 엄마와 나는 동네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우동을 먹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그릇에 있던 튀김을 건져 내가 먹던 우동 그릇에 올려주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한 가족 외식이었다. 기분이 묘했다. 이 나이 많은 측은한 남자가 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달용이의 외출」, 303쪽.)

형의 외출은 그동안의 가족의 관계성을 되돌아보게 했고, 달용이의 외출은 "나이 많은 측은한 남자"로 변해가는 아버지의 현재를 응시하게 했다. 그러나 가족의 부재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을 대상(아들 또는 형)의 부재와 이를 대체하는 존재(달용이 또는 아버지)에 대한 투사라는 욕망의 삼각형 구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무심함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의 정동이라는 전형적 도식에 갇히는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지점은 아버지의 '달용이-되기'이다. 달용이의 '외출' 이후 아버지는 달용이를 닮아간다. 가족의 사랑을 갈구했던 달용이처럼 아버지는 마치 개의 피부와도 같은 '황토색 폴리에스테르 실내복'(306쪽)을 입은 채로 부엌에서 잠드는 생활을 반복한다. 식탐이 많았던 달용이처럼 부엌을 떠나지 않으며 씻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달용이의 자리로의 재배치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 달용이는 식탁이며 싱크대까지 훌쩍 뛰어올라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먼저 맛보았다.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제 집을 놔두고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자며 엄마의 거동을 살폈다. 또한 달용이는 씻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목욕하자는 말만 해도 물어뜯을 듯 으르렁대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달용이의 외출」, 295쪽.)

> 놀랍게도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깨워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달용이의 외출」, 305쪽.)

> 부엌에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는 그 뒤로 수시로 목격되었다. …… 그

> 저 말없이 각자의 작은 방에서 잠들 무렵, 그때가 되어서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잠을 자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그것이 달용이가 집을 나간 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달용이의 외출」, 306쪽.)

이러한 배치의 관계와 감응의 관점[19]에서 소설의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달용이의 출현과 부재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도의 특징과 변화를 알 수 있다. 가난과 빚을 대물림한 부모는 언제나 생업에 바빴고 공부를 잘했던 형은 자신의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화자인 동생은 소외감을 느끼던 관계였다. 바쁜 일상은 가족 간의 유대와 사랑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관계의 조건이었다. 동생이 달용이를 입양한 이유는 달용이가 애완견 숍의 한 구석에서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달용이의 존재와 부재가 서로에게 무심했던 가족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이중적 기능

19) 배치와 감응에 대한 관점은 꼬마 한스에 대한 분석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꼬마 한스를 오이디푸스적 삼각형에 가두는 정신분석에 반대하면서 꼬마 한스와 말의 관계를 '감응'의 문제로 분석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네 살의 꼬마 한스는 무거운 짐과 마차를 끄는 말이 무게로 인해 힘겨워하거나 쓰러져서 다리를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 후 말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의 증상을 보인다. 정신분석은 이를 근친상간 욕망과 처벌, 아버지라는 초자아의 거세 공포가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말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 사례를 꼬마 한스의 '말-되기'의 맥락으로 분석하면서, 특정한 배치 속에 놓여있던 한스가 또 다른 특정한 배치 속에 놓인 말과 관계하여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말이 발산하는 운동과 힘의 상태에 감응되어서 자신의 신체와 감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기가 버둥대는 것을 말이 누워서 버둥대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며, 화장실의 세찬 물소리에서 말의 오줌 소리를 연상하면서 좋아하기도 하며, 승합차나 짐차를 무서워하고 말을 괴롭게 한 이미지의 변용인 검은 속옷을 보고 침을 뱉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는 한스가 말로서 느끼는 공포와 고통에 감응한 것이다. 즉 꼬마 한스의 사례는 일종의 '말-되기'(동물-되기)로써 새롭게 조성된 배치에 의해 특이한 감응의 상태로 들어선 것이다.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488-489쪽.

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형의 죽음과 이어진 달용이의 '외출'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재배치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연속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아버지는 '생업'을 그만둠으로써 고정된 배치를 흔들고, 이어 달용이와 닮아감으로써 자신을 아버지라는 주체의 고정된 자리에서 탈각시킨다.

때문에 식탐이 늘어가고 부엌에서 잠드는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보살핌의 주체인 가장에서 보살핌의 대상인 애완의 자리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의 자리를 달용이의 자리로 옮김으로써 사라진 존재들에 감응하게 되고 아들과 달용이의 부재로 인한 정동을 서둘러 종결짓지 않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달용이 사이 모방, 흉내, 동일시, 연민 동정 같은 것이 아니다.[20] 자신을 사라진 존재들이 되게 해주는 운동과 정지의 관계, 즉 관계들의 배치 속으로 기입됨으로써 감응하게 되고 그것을 기꺼이 자기 주체의 요소들에 부여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을 때 동물-되기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무엇보다 고정되고 규범화된 언어, '살균된 슬픔'[21]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를 촉발한다.

> 3년 전, 우리는 형을 사고로 잃은 뒤 유가족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그 단어로 명명되는 내내 우리는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달용이의 외출」, 297쪽.)

> 기자들은 무턱대고 나에게 와서 네가 개 동생이지, 하며 말을 걸어왔고 형에 관해 물었다. 장래희망이 무엇이고 취미나 특기가 무엇이었는

20) 동물-되기, 그것은 닮음(=유사성)을 겪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닮음은 동물-되기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나 정지가 될 뿐이다. 윌라드가 쥐-되기에 성공한 것은 쥐의 모양이나 행동을 흉내 내거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벤과 윌라드가 서로 촉발・감응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구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수경, 앞의 논문, 415쪽.)

21) 백상현, 앞의 책, 61-67쪽.

> 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는지, 친구 관계는 어땠고 혹시 수학여행을 간 아이들 중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었는지, 평소에는 어떤 형이었고 집에서 둘은 주로 뭘 하며 놀았는지. 쏟아지는 질문에 나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형의 사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어려서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짠하고 슬픈 동생으로 그려졌다.(「달용이의 외출」, 298쪽.)

> 무책임한 위로와 무의미한 동정, 지킬 수 없는 약속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엄마는 멍하게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연락 오는 지인들과도 서서히 멀어져갔다.(「달용이의 외출」, 299쪽.)

미디어를 장악하고 애도의 언어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동의 표현들을 금지하는 파시스트적 행태는 권력 유지의 불안강박을 증명한다. 그러나 '제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정언어법으로 수용하며 따르는 주체의 강박은 이런 권력의 형태 때문만은 아니다. 사건 이후 경제적 질서 유지, 사회의 안정, 학교의 정상화, 출근, 등교 등의 일상적 언어에도 규범적 강박증은 스며들어 있다. 기존의 사유 틀을 벗어나려는 사태에 대해 잔혹한 폭력과 차별을 행사하는 태도는 병리적이다. 자신의 지식 너머를 사유할 수 없고, 현재의 주체를 초과하는 것들에 낯설고 이질적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병리적 주체는 자신을 지킨다.[22] 물론 그 태도가 병리적일수록 주체가 위험을 직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용문에서 보이는 유가족이라는 호칭, 도무지 그런 것들을 왜 알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자들의 질문 내용들, 무책임한 위로와 무의미한 동정 등은 사건을 표현하는 고착화되고 규범화된 언어적 형식의 빈약함을 드러낸다. 언어를 초과하는 사건 앞에서 곧바로 합당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터, 촌각을 다투어 기사를 내야 하는 보도의 형식은

22) 백상현, 앞의 책, 53쪽.

이런 사태를 “아직 어려서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짠하고 슬픈 동생”이라는 클리셰 이상의 해독 능력이 들어설 공간을 삭제한다. 이 빈약함은 가족들에게도 다르지 않아서 동생은 상실의 정동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형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또 어떻게 추모해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렸다는 말보다는 어려웠다는 말이 더 합당한 변명이었을 것이다”(298쪽.)라는 진술에는 화자가 겪는 고정된 언어 시스템의 무력감이 스며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소설의 동물-되기는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먼저 아버지의 ‘달용이-되기’는 규범적 언어 구조와 고착화된 슬픔의 방식을 초과하면서 동물-되기의 생성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버지로 명명되는 상징계적 질서와 고착화된 가족의 배치를 벗어나 타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재배치하면서 아버지라는 표상을 거부하는 전복과 새로운 진리 찾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카프카가 그랬던 것처럼 변신은 전락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이다. 카프카의 동물-되기는 은유나 알레고리적 능력이 아니라 변신의 능력에 가깝다. 카프카가 동물로 변신한 주인공을 표현할 때 그는 변용을 통한 어떤 생성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 진단이 카프카의 문체를 내용과 형식을 변용하는 실제적 재배치를 가져왔고, 문학은 하나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탈주체적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는 강박증자이기도 하다. 그는 아들이 세월호와 함께 떠나기 전까지 강박증적 노동자였다. 배달 콜은 시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가족의 “기념사진에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다.”(289쪽.) 가난과 빚과 노동을 대물림 받았던 부모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몇 안 되는 배달맨”(288쪽.)이라는 찬사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는 가난을 볼모로 노동과 휴식의 반려를 요구하는 자본의 달콤한 논리를 내면화한 결과일 뿐이다. 아들의 죽음에 직면해 사회가 규정한 고정된 배치를 넘어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고정된 언어

로 표현되는 슬픔 이상의 정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다시 반복과 강박의 노예가 된다.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학습된 무력감(또는 무기력)'은 그를 소파와 텔레비전과 리모콘 사이에서 반복적 행위를 수행하는 강박으로 몰아갔다. 이는 더 이상 어떤 '모호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과 미디어의 언어는 아들의 죽음을 사고가 아닌 다른 상태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모호함의 지점에 아들의 죽음이 놓여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유의 틀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노력을 중단했다. 서둘러 보상금을 받았고, 다른 유가족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아버지가 달용이의 외출 이후 달용이처럼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는 인간의 언어를 초과하는 슬픔을 동물-되기를 통해 체험하고 보여주는 능동적 측면의 점도 있지만,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한 것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 찾기를 포기한 자기에 대한 징벌의 성격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사랑과 최지애의 작품에 주목하는 것은 동물(비인간)을 등장시키는 서사들이 비극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 지닌 전형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재현에서 현실 너머의 자리로 글쓰기의 자리를 이동시키며, 고정된 주체의 자리를 탈영토화하면서 규범적이고 고정된 배치에 물음표를 던지는 역할을 문학을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설의 언어를 사회과학의 자리에서 다시 상상력과 확장성이 작동하는 문학의 자리로 옮겨오기도 한다. 즉 비극적 재난을 배경으로 하는 전형적 플롯 자체를 '문학의 정치화'라는 병리적 강박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정치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동물-되기 또는 동물 실종의 은유는 애도 작업의 종결을 회피하기 위한 소설의 전략이다. 동물의 언어와 방식으로 인간의 고정관념, 언어로

포착 불가능한 정동의 유대를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의 방식으로서 '토포스(topos)'(자아가 귀속된 공동체의 지형)로부터 이탈하여 '아토포스(atopos)'[23](비장소, 탈장소, 탈인간, 비인간)로 이행하는 주체의 흔들림을 기꺼이 수행하는 전략이다. 익숙한 플롯과 익숙한 언어로 이야기되기를 거부하면서 문학의 소명을 탐구하는 방식이며, 섣부른 봉합에 저항하는 주체들에 의해 진리 사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진리 출현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달용이의 외출」은 출구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섣부른 봉합선을 거부하고 진리 찾기의 도정을 유지하려는 작가의 의식적 노력이 만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좀비와 생존주의

망각은 생명권력이 지배하는 침묵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자란다. 지배권력이 생명의 보존과 인구관리 더 정확히는 경제적 질서의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의 신체에 해당하는 인민을 관리할 때, 총과 칼이 아니라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의 형태를 띤 채 인민들의 개별적 신체들의 삶에 작동될 때 인민의 신체는 산-죽음과 다르지 않게 된다.

방민호의 「흡혈 사마귀」[24]는 침묵하는 주체들의 산-죽음의 양상을 좀비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개발 아파트 현장의 기계음이 한창인 도시의 높은 지대에 있는 한 연립주택 416호에 살고 있는 주인공 '민'은 거대한 사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괴물을 잡아 처단한다. '민'은 그동안 놈이 저질러온 모든 짓들 중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중에서도 놈이 3년 전에 저지른 짓"(171쪽.)만은 너무 끔찍

23)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사랑의 단상』, 동문선, 2004, 60쪽.
24) 방민호, 「흡혈 사마귀」,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이후 본문에는 작품명과 쪽수 또는 쪽수만 표기)

해서, “아이들을 수장시킨 일”(172쪽.)만은 납득할 수 없어서 “가방에 늘 달고 다니는 노란 리본을 놈의 심장을 도려낸 자리에 심어줄 작정”(173쪽.)이다. 괴물은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 내가 죽어도 내 종족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174쪽.)라고 하면서 민과 대립하고 동시에 더듬이를 통해 자신을 추종하는 좀비에게 신호를 보낸다. 괴물의 여섯 개 다리를 잘라내고 이제 몸통만 남은 놈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순간 좀비들이 ‘민’의 거처를 습격하고, 민의 칼과 좀비 떼의 손에 들린 낫이 서로의 목을 겨누어서 “낫날과 리본이 찰나를 다투는 순간”(175쪽.) 소설은 끝난다. 승부를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사회적 질문처럼 보인다.

소설의 서사 구조는 단순하다. 소설은 민과 놈, 피해자와 가해자, 절대악과 정의, 복수와 반격,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 슬픔과 망각, 분노와 비웃음 등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피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지시하는 알레고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당시의 국가권력을 괴물화하고 이에 대한 복수와 반격이라는 전형적인 플롯을 취한다. 방민호는 첫 번째 추모소설집에 수록된 작품 「서쪽으로, 서쪽으로」(『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옥, 2014.)에서도 일상적인 젠더 폭력의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인 남성의 대립을 통해 구조적 폭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찾기라는 구도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는 종교적이고 구도자적인 인물인 ‘노인’을 함께 등장시키면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는 진리 탐색의 서사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구도에는 사건의 배면에 은폐된 구조와 권력의 작동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폭력적이었던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작가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추모소설집의 「흡혈 사마귀」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진실보다 폭력의 주체를 알레고리적으로 지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복수의 서사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열린 형태로 끝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망각되어가는 상황)의 핵심에 ‘놈’으

로 표현되는 흡혈 사마귀가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좀비 떼의 존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흡혈 사마귀가 주권 권력의 알레고리라면, 좀비들은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경제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는 수동적 주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 민은 그런 사람들이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있어왔음을 알았다. 루마니아에서 그것은 드라큘라였다. 멕시코에서 그것은 추파카브라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누케구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강시라고 했다. 한국에서만 유독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없는데, 이는 이 나라에서는 이들이 더욱 은밀하게 활동해왔음을 의미할 뿐이었다. 민만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과 그들의 우두머리 큰사마귀의 공포에 시달려왔던가. …(중략)…
>
> - 어, 어디에 계신지 말해.
>
>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얼굴은 조금씩 달랐지만 말을 더듬는 것까지, 입 모양까지도 똑같아 보였다. 죽어도 죽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흡혈 사마귀」, 160-161쪽.)

어느덧 좀비 서사는 인간 세계 자체가 재앙이 되어가는 파국의 국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묵시록의 형식[25]이 되었으며, 이제 좀비는 현대의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기획으로 소비되고 소환되고 있다. 이때 좀비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부패를 시각적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강력한 전염성과 멈추지 않는 지속적 파괴의 속성은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종말의 위협을 상기시킨다. 더 중요한 점은 좀비들의 무조건적인 전진성, 잡식성, 전염성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노동의 색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시체(the living dead) 또는 언데드(undead)로 표상되는 좀비의 모습은 반복적 노동행위의 양식이 신체의 운동성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강박

25) 이정진, 「좀비의 교훈: 새로운 정치적 주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쳐」, 『안과밖』 34, 2013, 241쪽.

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또 경제 공동체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한다는 점에서 좀비는 색출과 제거의 대상이 된다. 반면 좀비들이 떼를 지어 도시를 배회하고 파괴하는 사태는 경제적 교환 시스템의 정지와 국가 행정력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좀비들이 사회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임을 연상하게 한다.[26]

좀비의 이런 특징을 상기할 때, 모두 같은 입 모양으로 같은 말을 내뱉는 인용문의 장면에서 이들의 집단성과 맹목성이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파국의 모습은 결국 각자의 생존을 최후의 목표로 설정하게 한다. 방민호의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이러한 좀비들의 사회학적 의미들은 결국 생존주의[27]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생존주의에 대한 김홍중의 날카로운 진단은 다음과 같은 풍경을 지시한다. 신뢰가 사라진 세계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이제 생존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실패의 원인은 개인에게 귀

---

26) 한국에서 생산되는 좀비물들은 이러한 묵시록적인 죽음충동의 방출과 달리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파괴력, 정치·문화적 연대와 대항공간의 상실, 생존 경쟁 속의 고립된 청년,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죄책감의 정서를 뚜렷하게 드러내며 내적으로 파괴되어가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좀비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로는, 박하림,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 서사 연구」, 서울대 비교문학 석사, 서울대학교, 2016년 2월.

27) "생존주의는,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지되고 체험되는 경쟁상황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수월성을 증명함으로써, 패배와 그 결과 주어지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믿는 마음, 마음/가짐, 그리고 마음의 레짐을 가리킨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력투구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이념들(이데올로기), 그런 생존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각종 테크닉들(장치),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에 체화된 성향들의 체계(하비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자들의 희망과 기억 혹은 공포와 불안을 형상화한 문화적 산물들(풍경)이라는 복합적 차원들의 사회적 배치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186-187쪽.

속되는 가혹한 풍경을 말이다. 이때 생존자들이 느끼는 고립과 불안은 소설에서 홀로 흡혈 사마귀와 좀비를 대적하는 주인공의 모습처럼 개인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슬픔과 연동된 정동은 생존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 때문에 비-인간적 형상을 내세우는 소설들에서 보이는 묵시록적 세계는 '죽음 충동'(재난, 비-인간성, 공격, 파괴, 아브젝트 등)을 최적자로 남겨놓은 채 슬픔과 애도의 정동을 에로스의 과잉 투자로 격하시킨다. 방민호의 소설에서 좀비들의 우두머리인 흡혈 사마귀가 '민'의 행위를 비웃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생존주의의 억압과 무한 경쟁 논리를 습득한 사람들에게는 도태와 패배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세월호의 진실을 외롭게 탐구하는 사람들의 고립과 불안을 연상하게 한다. 이 불안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생존의 수행원칙을 실천하면서 좀비의 세계관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28]

그렇다면 방민호가 세월호를 추모하는 작품집에서 좀비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명확해진다. 가혹한 생존주의의 행동양식이 바로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며, 또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을 망각하게 하면서 다시 경제적 질서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것도 생존주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좀비의 존재로 상징화하는 것이다.

이때 좀비들이 보이는 반복 강박은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불쾌를 완화하려는 증상이다. 프로이트는 반복강박이 억압된 감정의 처리를 위해 작동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쟁과 죽음을 경험한 주체에게 남은 깊은 외상은 그 불쾌의 정동을 반복적 놀이로 치환시키고, 그럼으로써 죽음의 충동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우리를 주체적 존재로 착각하게 하는 메커

28) "'흠, 너희같이 약한 족속들은 그런 말을 지어내길 좋아하지. 우리가 벌이는 일에 마치 무슨 불순한 동기라도 붙어 있는 것처럼. 너같이 피해망상을 즐기는 놈들의 특징이지. 강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이유를 붙이지 않지. 양파 껍질을 모조리 벗겨내 보려무나.'"(172쪽.) /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 내가 죽어도 내 종족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174쪽.)

니즘이 바로 반복강박이라고 설명한다. 프로이트에게 문명은 본질적으로 충동의 억압 위에 세워진 불안과 신경증적 건축물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경제지상주의와 생존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외상이다.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좀비의 존재는 이 불쾌의 경험이 남긴 외상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우리 안의 낯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래 좀비라는 형상은 현대의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묵시록적 불안과 공포를 문명이 억압했던 타자의 형태로 은유하는 회피와 은폐의 양식[29]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체는 자기 내부에 존재했던 낯선 것을 외부화해서 타자에게 투사하고, 이를 정상의 범주 바깥으로 내몰면서 혐오스런 눈빛으로 응시한다. 억압된 것은 귀환한다는 말이 상기시키는 바, 좀비의 모습에는 희생자, 사회적 타자, 이민자 등 주체들의 폭력적 역사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좀비는 타자화의 흔적이며, 좀비를 등장시킨 방민호의 세월호 소설은 우리 사회가 타자화한 이데올로기의 식인성을 보여준다. 그러니 좀비라는 비-인간의 형상 속에 은폐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의 낯선 것', 한국 사회가 하나의 이념으로 공유하고 있는 '먹고 사는 일의 우선성'이라는 '섬뜩함(uncanny)'[30]의 이데올로기이다. 방민호의 소설에 등장하는 좀비의

29) 좀비를 후기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파국적 산물로 본 논문으로는, 복도훈, 『묵시록의 네 기사』, 자음과모음, 2012, 147쪽. / 좀비를 주체의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하는 장소로서 상징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인간과 비인간 또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교란되는 아브젝트(abject)의 상징으로 읽은 논문으로는,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11쪽. / 한국형 좀비를 세대론적 관점에서 본 논문으로는,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30, 2013, 186쪽.

30) '섬뜩함(uncanny)'은 "공포감의 한 특이한 변종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오래전부터 친숙했던 것에서 출발하는 감정"이며, 익숙하던 것이 낯설게 다가올 때 야기되는 불안이다. 프로이트가 "어둠 속에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과 어둠 속에서 나온 것, 모두는 unheimlich한 것"이라고 할 때, 'unheimlich'에는 접두사 un-이 제거된 heimlich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즉 heimlich한 것이 unheimlich한 것이다. 익숙한 것이 곧 낯선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두려운 낯설음」,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405-406쪽.

형상에는 좀비의 소설화에는 경제지상주의와 생존주의가 세월호 사건의 망각에 가담한 정황이 담겨 있다.

좀비의 서사는 자본주의 세계의 파괴 위에서 자본의 기표가 지워진 세계에 대한 조우라는 점에서 강력한 죽음충동의 강박과도 같으며, 현재 세계의 파괴성 필연성이라는 비판적인 묵시록적 상상력과도 조우한다. 때문에 좀비 서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방민호의 소설에서 좀비의 습격은 '억압된 것의 회귀'가 아니라 '억압된 채로의 회귀'인 것이다. 기억의 상실, 집단적인 포식성, 인간의 윤리적 사유의 정지, 일그러진 신체에 남겨진 사회적 외상의 흔적 등은 세월호 사건을 기억의 대상에서 지우려는 신경증적 불안 증상인 셈이다.

5. 나가며 ; 탈주체화의 정치성

세월호 추모소설집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주체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타자의 자리로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물-되기의 역능은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좀비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낯설지만 익숙한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신체적 외상의 흔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서사들이 추모라는 양식이 요구하는 엄숙함과 진지함을 갖춘 재현의 양식은 아닐 수 있지만, 고정된 언어와 세탁된 슬픔의 레토릭을 거부하고 슬픔의 종결을 거부하면서 문학을 새로운 진리 추구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언급하자면 변신은 도태나 퇴화가 아니라 능력이다. 동물과 좀비와 같은 비-인간적 형상의 기괴함은 역설적으로 변화의 잠재성을 드러낸다.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자화상들은 일그러진 얼굴과 강한 직선의 흐름에 의해 흘러내리는 듯한 표현 질감으로 이질적

이고 기괴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베이컨의 기괴한 형태를 불쾌가 아니라 변형의 잠재성으로 해석했다. 인간이지만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에서 벗어나 보이는 신체와 구별선(봉합선)들이 지워지는 얼굴의 형상 등의 표현은 어떤 파동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과정 자체가 지니는 강한 역능을 보여준다. 파괴나 해체가 아니라 고정된 구성과 형식을 지양하는 생동감과 탈주의 에너지이다. 이는 앞서 말한 '되기의 강밀도' 또는 탈주체화의 가능성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진리 탐구의 필요조건으로 인식된다. 그러니 신체의 고정성을 벗어나 주체가 스스로를 재배치하는 서사의 형식 자체가 탈영역과 새로운 리좀의 가능하게 하는 탈주의 선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세월호 소설들에서 비인간적 형상들, 동물 또는 좀비 등의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는 마치 사건이 사건 이후 주체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과 같다. 소설들이 말하려는 주제의 측면에서 작품들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복수와 망각에 잠식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탈주체화의 차원에서 비-인간적 형상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살균된 슬픔이나 고정된 애도에 머물지 않고 주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슬픔의 정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깊은 슬픔은 애도와 달리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으려는 주체를 방황하게 하고 유령처럼 공동체의 내부를 떠돌게 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길들이려 하는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정동의 파상성을 증거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소멸되지 않는 슬픔의 존재는 그 공동체의 언어와 사유가 지닌 능력의 임계점을 드러낸다. 그러니 멈추지 않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건에 대한 충실성의 증상이다. 어떤 진실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표지하면서 반대로 어떤 진실을 찾아 이행하고 있다는 표지이기도 하다.

인간을 넘어서려는 주체들의 형상은 때로 반-인간적이며 때로 너무나도 현실적 인간과 유사하기도 하다. 변형의 잠재성을 지닌 존재들은 고정된 사유의 눈으로 볼 때 언제나 기괴하고 비정상적으로 인식된다. 그들의 신체에 남겨진 상처 또는 일그러짐은 달리 보면 그들의 신체에 남겨진 억압의 상흔들이기도 하다. 스티그마(stirma)의 본래 의미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낙인과 고문과 억압이 예수의 신체에 남긴 '상흔'들이었고 못과 창과 가시관에 의해 생긴 손과 옆구리와 머리의 상처들이 이후 사도들의 신체에 다시 나타나는 '성흔(聖痕)'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비-인간적 형상들이 보이는 신체의 특이한 운동성은 세월호라는 상처가 탈주체화를 감행하는 문학에 남긴 스티그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슬픔을 봉합하지 않으려는 주체들의 노력에는 세월호 사건을 억압하는 권력과 상징계적 언어의 안간힘에 저항하는 정치적 정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지속하려는 탈주체화의 소설이 담고 있는 슬픔은 운동하고 생성하고 탈주하는 문학의 정치성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사랑, 「사자의 침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예옥, 2015.
방민호, 「흡혈 사마귀」,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
최지애, 「달용이의 외출」, 『숨어버린 사람들』, 윤후명 외, 예옥, 2017.

<논문 및 단행본>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이병천 · 박기동 · 박태현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6.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1 -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16, 전남대호남학연구원, 2018, 61-95쪽.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 2 - 추모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33-74쪽.
김현미, 「애도의 저자들, 준엄한 기록들」, 『여/성이론』 32, 여이연, 2015, 265-272쪽.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트라우마와 문학」, 『문학과사회』, 2014년 가을호.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179-212쪽.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박하림,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 서사 연구」, 서울대 비교문학 석사, 서울대학교, 2016년 2월.
백상현, 『라깡의 인간학』, 위고, 2017.

백상현,『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 세월호에 대한 철학의 헌정』, 위고, 2017.
복도훈,『묵시록의 네 기사』, 자음과모음, 2012.
세월호 기록팀,『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힘, 2016.
송아름,「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대중서사연구』30, 2013, 185-223쪽.
신샛별,「최근 소설이 '세월호'를 사유하는 방식」,『창작과비평』168, 창작과비평사, 2015.
윤지영,「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으로서의 주체의 콘텐츠화」,『철학연구』125, 대한철학회, 2013, 261-282쪽.
이광호,「남은 자의 침묵-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문학과사회』, 2014년 겨울호.
이수경,「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 연구」,『철학논총』72, 새한철학회, 2013.4, 409-441쪽.
이정진,「좀비의 교훈: 새로운 정치적 주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쳐」,『안과 밖』34, 2013, 239-275쪽.
이진경,『노마디즘 2』, 휴머니스트, 2003.
인디고 서원,『새로운 세대의 탄생』, 궁리출판, 2014.
인문학협동조합,『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 노명우 외, 현실문화, 2015.4.16.
최강민,「세월호 참사와 치유적 글쓰기」,『어문론집』71, 중앙어문학회, 2017, 197-230쪽.
한국철학사상연구회,『망각과 기억의 변증법』, 김교빈 외, 이파르, 2015.

<번역서>

들뢰즈/가타리, 김재인 옮김,『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3.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사랑의 단상』, 동문선, 2004.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두려운 낯설음」,『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03.

<Abstract>

Appearance of non-human figure and desubjectiveization of Sewol Ferry Novel
- Animal-Being, Zombies, and the Politics of Sorrow

Kim, Young-Sam*

This thesis analyzes works that depict non-human beings such as animals (lions, dogs) and zombies in the Sewol Ferry Memorial Novel Collection. Through this, we inte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truth of desubjection. The sociological meaning of 'Animal-Being' and zombies suggested by Deleuze and Guattari is used as a methodology. Narratives of non-human beings are a formal experiment in literature that reveals the change of subject and the politicization of sadness after the incident, blocking the way from the Sewol Ferry incident to 'sterilized sadness' or to the domination of survivalism. Deleuze and Guattari propose the method of desubjection, in which the subject rearranges one's own position to the other's, as a principle in which the vital force of 'becoming (=creation)' operates. Man's 'Animal-Being' is real, even if the man turned into an animal is not real. Because 'becoming' is the production of rhizomes and is a verb.

Animals appearing in the novels of Park sa-Rang and Choi Ji-ae simultaneously showe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becoming' through the transformation and response of the subject. The narrator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Park sa-Rang shows the process of gradually forgetting the sorrow of the Sewol Ferry incident in the form of a failure narrative of 'Animal-Being(lion)' in order to maintain economic daily life. The main character sheds tears as he watches the tragedy transmitted on television and undergoes subtle changes in his daily life. The lion is the projected illusion of these changes and responses, and is evidence of the transition to 'becoming'. However, the change in the arrangement relationship did not fundamentally change the life of the protagonist. This is because the speaker's affect was requested or given from the outside, and the 'strength of becoming' was low. Meanwhile, Choi Ji-ae's father suffers from the absence of her son, who was sacrificed in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the dog, Dal-yong, who left home. His father's 'Animal-Being(dog)' signifies the absence of the object he loves through his own escape. The novel raises questions about the symbolic order system by relocating the father's place to that of Dal-yong, revealing that transformation is not a degeneration but an ability. However, just as repetition and obsession are characteristic of norms and symbolic language emphasized by a fixed order, the father of the novel has a limitation that he could not completely escape from the obsession with repetition. At this time, his father's 'Animal-Being' implies the character of self-punishment. Min-ho Bang's novel symbolizes the survivalist reality of forgetting the meaning of the Sewol Ferry incident through the existence of zombies. The zombie's unconditional straight-forward and obsessive repetitive behavior reminds us of the form of labor acquired in capitalist society. In other words, zombies prove the harshness of survivalism and at the same time prove the

pathological symptoms of our society that transmit the behavioral patterns of survivalism. The appearance of zombies in Bang Min-ho's novel shows that this harsh survivalism is the cause of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that it is also a pathological symptom that prevents the faithfulness of the pursuit of truth requested by the incident.

Sadness and anger are affects that have the power to shake the subject and find new meanings by relocating themselves. However, sadness conveyed through fixed language and normative methods is reduced to sadness washed away by the cathartic effect and falls into a state of emotional exhaustion. The non-human beings appearing in the three works highlighted in this thesis are relocating the literature by preventing the exhaustion of these emotions and showing the power of the politics of sadness as narratives of failure and possibility.

Key Words: Sewol ferry, Animal-Being, zombie, desubjectionization, non-human, survivalism, 「Lion's bed」, 「Dalyong's outing」, 「Vampire mantis」

▌논문접수 : 2021년 7월 31일
▌심사완료 : 2021년 8월 15일
▌게재확정 : 2021년 8월 19일